



메콩 경제권 핵심국인 캄보디아와 경제협력 강화

- 「한-캄 통상장관회담」에서 교역투자·ODA·청정에너지 협력방안 논의
- 제1차 「한-캄보디아 FTA 공동위원회」 상반기 개최 합의

한국과 캄보디아가 '22.12월 발효된 자유무역협정(이하 FTA) 3년차를 맞아 FTA 이행 점검을 비롯해 교역투자, 인프라, 탄소중립 등 양국의 유망 협력 분야 성과를 본격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.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7일(수)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하여 켄 시탄(Kem Sithan) 상무부 장관대행(Acting Minister)과 「한-캄 통상장관회담」을 개최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.

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, 개발협력, 탄소중립 공동 대응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다. 특히 정 본부장은 한국이 캄보디아 전체 직접투자의 10% 이상을 차지하는 캄의 2위 투자국임을 강조하며 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캄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, 양국이 추진중인 식품가공 현장 애로기술지도(TASK) 센터 구축, 온실가스 국외감축 협력 등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키로 합의하였다.

한편, 양국은 상품무역, 원산지 및 통관절차, 경제협력 등 한-캄 FTA 공동위 산하 분과위를 개최하고 양국 간 교역 현황 및 성과 점검, 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, 경제협력 사업 등을 논의하였다. 아울러,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 플랫폼인 「한-캄 FTA공동위」의 첫 번째 회의를 상반기 중 개최하는데 합의하고 교역품목 다각화, 공급망 밸류체인 강화, 기업 FTA 활용도 제고 등의 공동위 성과 발굴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.

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“캄보디아는 젊은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연평균 7% 경제성장을 거듭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로서, 한-캄 FTA 등을 통해 캄보디아가 한국의 대(對)아세안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통상협력국	책임자	과 장	김민혜 (044-203-5710)
	아주통상과	담당자	사무관	강홍구 (044-203-5712)
	FTA정책국	책임자	과 장	고 현 (044-203-5750)
	FTA이행과	담당자	사무관	박정원 (044-203-5753)